

壬辰倭亂期(1592~1598) 조선과 일본의 豊臣姓氏 활용과 그 인식

임현채

목 차

- I. 머리말
- II. 외교문서상 豊臣姓氏의 등장과 활용
 - 1) 일본군의 豊臣姓氏 활용
 - 2) 명군의 豊臣姓氏 활용
- III. 조선의 豊臣姓氏 배제와 平氏 활용
 - 1) 조선이 平氏를 활용한 이유
 - 2) 전쟁 중에 활용된 平氏와 그 인식
- IV. 맺음말

I. 머리말

1592년부터 1598년까지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를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임진전쟁(壬辰戰爭)이라는 용어로 임진왜란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다.¹⁾ 그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개별 전투가 중심이었던 연구 풍토 및 일국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적인 관점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일본이 명으로 대표되는 중화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였으나, 그것이 조선과 명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봉공질서에 기초한 동아시아 패권 구도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당대에 어떠한 수단을 통해 일본이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이전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는지, 조선이나 명이 그러한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 일본에서는 히데요시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豊臣姓氏를 광범위하게 배포하였다. 본래 7세기 율령제 일본 사회에서 氏姓은 그 자체로 권력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³⁾ 다이가 카이신[大化改新] 이후로 후지와라[藤原]·미나모토[源]·타이라[平]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1) 본 사건을 두고 임진전쟁이라고 칭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견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전투이자 사건이었고 국가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정두희, 「16세기 최대 전쟁, 임진왜란」, 정두희·이경순 역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p.21~22)가 첫째, 임진전쟁은 일개 반란이 아닌 주권국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pp.335~337)가 둘째다.

2) Kenneth M. Swope,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9;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 李基東, 「新羅의 骨品制度와 日本의 氏姓制度」, 『역사학보』94:95, 1982, pp.144~149.

의미를 상실하였다.⁴⁾ 이후 겐페이토키치[源平藤橘]로 성씨가 통합되면서 성씨가 권력과 가격[家柄]을 보여줄 수 없게 되자, 鎌倉幕府 즈음부터 지명이나 아자나[字] 및 통자에서 비롯된 묘지[苗字, 名字]가 성씨의 역할을 대체하여 활용되었다.⁵⁾ 이러한 묘지는 室町幕府에 접어들면서 지명이 아닌 선대의 것을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동시에 격식을 갖추는 문서에서는 姓氏를 드러내었다. 이는 곧 그 가문의 가격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하였다.⁶⁾ 토요토미 성씨는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이 등장한 성씨였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뒤를 이을 때 일시적으로 타이라[平]를 칭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본의 최고 권력에 오를 수 없었다. 비록 형식상에 지나지 않더라도, 히데요시는 칸파쿠[関白]에 취임하기 위하여, 후지와라 씨의 예를 따라 토요토미라는 새로운 성씨를 하사받아야만 하였다.⁷⁾ 또한 히데요시는 토요토미 성씨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 확충에 고심을 기울였는데, 이 성씨는 히데요시가 하시바[羽柴] 묘지를 쓰는 인사 모두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그 외에 구오다[織田] 가문이나 센고쿠 다이묘[戦国大名]들, 심지어 하시바 묘지를 받지 않은 武家 대다수에게도 토요토미 성을 주었다.⁸⁾

따라서 조선에 출정한 다이묘급 무사 대다수는 授姓의 대상자였다.⁹⁾ 이러한 와중에 실제로 『朝鮮王朝實錄』에서 그러한 토요토미 성씨의 활용례를 찾아볼 수 있음에도, 임진왜란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당시 일본에 源氏와 平氏밖에 없는 줄 알았기에 생긴 오류라는 추정에서부터 시작하여,¹⁰⁾ 단지 히데요시 등이 平氏를 사용했기에 그를 그대로 채용했다는 해설,¹¹⁾ 조선에서 쇼군가를 제외한 인물들에게 平氏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¹²⁾는 정황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간에 상충하는 내용도 있고, 해설의 내용이 사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도 임진왜란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¹³⁾ 이러한 접근은 메이지 이신[明治維新] 이후 묘지와 성씨의 구별이 사실상 없어진 ‘근대 일본인’의 인물 이해에 가깝기에,¹⁴⁾ 전쟁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시각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낳았다.

4) 이들 중 후지와라는 소가[蘇我] 씨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천황이 나카토미노 카마타리[中臣鎌足]에게 직접 내린 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3개 성씨도 쇼무 텐노[聖武天皇, r.724~749]가 직접 황족을 신하로 격하시키면서 내린 성씨라고 한다(존 W. 홀 저, 박영재 역, 『일본사』, 역민사, 1986, p.73).

5) 阿部武彦, 『氏姓』, 至文堂, 1976, pp.120~128.

6) 엄밀하게 구별하면 관료군을 의미하는 카바네[姓]와 종족을 포괄하는 우지[氏]는 다른 개념이었으나(자세한 내용은 이근우, 「고대 일본의 씨성 개념과 『신찬성씨록』의 개성」, 『韓日關係史研究』64, 2019, pp.40~48을 참조), 이미 나라~헤이안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姓과 氏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姓氏, 氏, 姓을 모두 사용하였다.

7) 이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二木謙一, 『武家礼儀格式の研究』, 広川弘文館, 2003, pp.230~231; 박수철,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p.492~493을 참조.

8) 下村効, 「豊臣氏官位制度の成立と発展--公家成・諸大夫成・豊臣授姓」, 『日本史研究会』377, 1994; 堀越祐一, 「豊臣期における武家官位制と氏姓授与」, 『歴史評論』640, 2003.

9) 사성받은 인물들에 대한 리스트는 다음 연구를 참조. 村川浩平, 「羽柴氏下賜と豊臣姓下賜(研究ノート)」, 『駒沢史学』49, 1996; _____, 「天正・文禄・慶長期、武家叙任と豊臣姓下賜の事例」, 『駒沢史学』80, 2013.

10) 李肯翊 저, 권태익 역주, 『練藜室記述』卷15, 민족문화추진회, 1967, p.7 참조.

11) 柳成龍 저, 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징비록: 한국의 고전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으로』, 아카넷, 2013, p.105 참조.

12) 鄭琢 저, 이민숙·이주해 역, 김경록 해제, 『壬辰記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p.97의 각주 9).

13) 한편 일본에서는 주로 豊臣氏授姓이 갖는 의미와 관료사회 및 권력구조 자체에 집중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경향은 黒田基樹, 「慶長期大名の氏姓と官位」, 『日本史研究』414, 1996; 池享, 『戦国・織豊期の武家と天皇』, 校倉書房, 2003를 참조.

14) 일본이 평민에게 묘지 사용을 허가한 때는 明治 3年(1870)이며, 전 일본 국민이 묘지를 쓰도록 한 때는 明治 8年(1875)이다(阿部武彦, 위의 책, 1976, p.135).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요토미 성씨의 문제를 일본 내부 정치 문제로만 보는 시야에서 벗어나, 일본에게는 새로운 ‘국제 무대’인 조선(과 명)에서 어떻게 활용되었고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된 자료로는 『宣祖實錄』을 활용할 것이다. 조선 측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朝鮮王朝實錄』뿐 아니라 『亂中雜錄』·『亂中日記』·『懲毖錄』·『再造藩邦志』·『練藜室記述』·『松雲大師奮忠序難錄』 등 이 시기를 다룬 사찬 사료들은 많으나,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토요토미[豊臣]’이라는 글자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자료에서는 平氏로 일본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조선의 사찬 사료 또한 보충자료로 참조하여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일본 측 기록은 키타지마 만지가 편찬한 『豊臣秀吉朝鮮侵略關係史料集成』 시리즈에 실려 있는 각 가문들의 임란 관련 문서들을 기초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朝鮮王朝實錄』, 특히 『宣祖實錄』에 나타난 ‘豊臣’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조선 측에서 이 豊臣姓氏를 지닌 대표적인 장수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이 성씨 문제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조선이 ‘敵’인 일본의 사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였는지,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이를 서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외교문서상 豊臣姓氏의 등장과 활용

1) 일본군의 豊臣姓氏 활용

히데요시는 1582년 추고쿠 회군[中国返し]로 권력을 잡은 뒤에 잠시 타이라[平] 성을 사용하였다. 이후 1586년 칸파쿠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후지와라[藤原]씨를 거쳐 토요토미[豊臣]를 天皇으로부터 賜姓받았다.¹⁵⁾ 그가 쓰던 묘지인 하시바[羽柴]와는 달리, 앞서 사용한 ‘타이라’나 ‘후지와라’ 姓氏들은 일본의 4대 명문가인 겐페이토키츠[源平藤橘] 중 하나였다. 그런데 토요토미는 이를 대체하는 성격의 새로운 姓氏다. 한편 아시카가 쇼군가의 입적에 실패함으로써 源氏를 받지 못한 히데요시는, 幕府의 최고지도자인 쇼군[將軍]에 오를 수 없었다. 그렇기에 동시에 토요토미라는 성씨는, 히데요시가 칸파쿠에 취임할 수 있는 근거 그 자체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히데요시는 토요토미 姓氏를 여러 다이묘들에게 분배하였다. 1588년에만 무려 43명의 다이묘가 토요토미 성씨를 하사받았다.¹⁶⁾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씨 수여는 관위 수여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히데요시가 성씨와 관위를 연계하여 직접 하사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¹⁷⁾ 그러므로 ‘豊臣’은 칸파쿠-타이코[太閤]로 이어지는 히데요시의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조선 침공군 제1진 대장을 맡은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 역시 토요토미 성을 하사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이 姓氏를 조선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다음 사료는 유키나가[李德馨(1561~1613)]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 일부다.

일본국에서 차출되어 온 先鋒 토요토미 유키나가[豊臣行長] 및 요시토시[義智]는 漢陰大人 閣下 李德馨에게 아뢴다. (...중략...) 팔도에 나누어 보낸 우리 제장의 성명을 대략 기록하여 태람(台覽)에 대비하겠다. 토요토미 테루모토[豊臣輝遠](輝元의 오기: 필자)는 경상도로 보냈고, 타카가게[隆景]는

15) 「公卿日記」, 天正 14年(1586), “関白從一位 藤秀吉 五十一 改藤原姓為豊臣云々.”

16) 村川浩平, 앞의 논문, 1996, p.86, <표: 豊臣姓被下賜者数年別グラフ>.

17) 池享, 앞의 책, 2003, p.115.

전라도로 보냈고, 이에마사[家政]는 충청도로 보냈고, 카츠타카[勝隆] 및 모토치카[元親]는 경기도로 보냈으며, 도성을 진호하는 자는 토요토미 히데이에[豊臣家秀](秀家の 오기: 발표자)이다. 토요토미 요시나리[豊臣吉成]는 강원도로 보냈고 토요토미 이에마사는 【위에 보인다. 혹 옮겨 쓸 적에 잘못 쓴 것인가?】 황해도로 보냈고 키요마사[清正]는 영안도로 보냈다. (중략) 일본 덴쇼(天正) 임진 6월 11일. 【토요토미 유키나가·토요토미 요시토시.】¹⁸⁾

이 글은 1592년 7월 尹根壽(1537~1616)가 명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한 유키나가의 편지 내용으로, 유키나가와 그의 사위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1615]가 조선 왕실의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6월 11일 발신인 이 편지에서 유키나가는 스스로를 토요토미 유키나가라 칭하였다. 공동으로 편지를 보낸 요시토시도 마찬가지로, 편지 말미에 스스로를 토요토미 요시토시라 칭하였다. 이는 같은 실록 기사에 실려 있는 6월 1일 발신한 편지에도 마찬가지로, 발신인을 토요토미 유키나가·토요토미 요시토시라 하였다.

그 외에 유키나가는 일본군 장수들 대부분에 대해 토요토미 성씨를 붙여서 호칭하였다. 이 사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토요토미 성씨가 붙은 인물들은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1553~1625]·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1573~1655]·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1611] 3인이다. 그 외에 중복되어 나온 토요토미 이에마사는 황해도로 파견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아, 3진 대장인 쿠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1568~1623]의 오기인 듯하다. 한편 그 외에 유키나가와 요시토시가 성을 명확하게 적지 않은 인물들은 코바야카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 1533~1597]·토다 카츠타카[戸田勝隆, ?~1594]·초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 1539~1599]·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1558~1639] 정도다. 이들의 경우는 1588년 豊臣 授姓의 대상이었던 코바야카와 타카카게의 예가 있는가 하면, 토요토미 성씨를 쓰지 않았던 카토 키요마사의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사료만으로 토요토미 수성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유키나가와 요시토시는 이들을 부를 때 토요토미 이외의 성씨나 각 다 이모들의 묘지를 쓰지 않았다.

이러한 면모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沈惟敬(?~1597)이 유키나가 및 요시토시와 주고받는 편지를 조선 측도 열람할 수 있었는데, 그 장에서 유키나가는 자신과 傍將 요시토시의 성명과 관위를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키나가는 이치히츠슈젠지 코니시 히쇼쇼칸 토요토미 유키나가[櫟津州前司小西祕書小監豊臣行長]이며, 방장 요시토시는 츠시마젠지 소 슈이지츄 토요토미 요시토시[對馬前司宗拾遺侍中豊臣義智]였다. 실록을 편찬한 사관은 이를 보고 토요토미가 姓, 유키나가와 요시토시는 名이라고 판단하였다.¹⁹⁾ 유키나가와 요시토시는 이미 조선에도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토요토미를 성으로 파악한 듯하다. 그러나 이 기록에 따르면, 유키나가와 요시토시는 자신들의 묘지인 코니시[小西]·소[宗]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조선의 사관은 이를 짚어내지 않았다. 『宣祖實錄』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 측 기록을 살펴봐도 ‘小西行長’이나 ‘宗義智’와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관뿐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 본 조선인들이 유키나가나 요시토시 등의 ‘묘지’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宣祖實錄』卷28, 25年(1592) 7月 1日, “日本國差來先鋒豊臣行長及義智, 謹白漢陰大人閣下李德馨。(중략) 吾諸將分遣八道者, 粗錄其姓名, 以備台覽。 豊臣輝元遣慶尙道, 隆景遣全羅道, 家政遣忠清道。 勝隆及元親遣京畿道, 鎮護城中者, 豊臣家秀也。 豊臣吉成遣江原道, 豊臣家政 【見上或傳書之際, 錯書耶?】 遣黃海道, 清正遣永安道, (중략) 日本、天正壬辰六月十一日, 【豊臣行長、豊臣義智】.”

19) 『宣祖實錄』卷30, 25年(1592) 9月 8日. 여기서 이치히츠슈젠지[櫟津州前司]·츠시마젠지[對馬前司]는 관할 영지, 코니시[小西]·소[宗]는 묘지, 히쇼쇼칸[祕書少監]·슈이지츄[拾遺侍中]는 조정으로부터 받은 官位, 토요토미[豊臣]는 姓氏, 유키나가[行長]·요시토시[義智]는 名이다.

유키나가 외에 주로 『宣祖實錄』에 등장하는 일본군 장수들은 주로 유키나가 휘하의 장수들인 요시토시 및 요시토시의 가신인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1539~1605]였다. 또한 평화협상이 진행되면서 히데요시의 측근인 테라자와 마사나리[寺沢正成, 1563~1633]도 『宣祖實錄』에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대개 스스로를 칭할 때 토요토미 성씨를 붙여 표현을 하거나, 아예 성을 붙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키나가 휘하의 장수들은 간혹 다른 다이묘나 관료들에게는 타이라[平]氏를 붙여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²⁰⁾ 자기 자신에 平氏를 붙이는 경우는 시게노부가 유일했다.²¹⁾ 다음 표는 『宣祖實錄』에 등장하는 일본군 장수들의 성씨 활용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1> 『宣祖實錄』에 나타난 일본군 장수들의 성씨 활용례²²⁾

	行長	義智	輝元	隆景	家政	清正	秀吉	調信	直茂	正成	합계
豊臣	23	3	1	0	1	0	1	7	3	4	43
平	0	1	0	0	0	2	2	4	0	0	9
없음	44	18	0	2	1	16	12	3	1	1	98
기타	2	1	1	0	0	0	10	0	0	0	14
합계	69	23	2	2	2	18	25	14	4	5	164

위 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인물은 협상의 중핵을 맡은 유키나가였다. 유키나가의 경우는 조선에서 호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타이라로 부른 적이 없다. 오히려 히데요시가 스스로를 타이라로 부르는 기록이 실록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은 히데요시가 보내왔다고 하는 표문을 인용한 것인데, 히데요시가 직접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2건은 일자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히데요시가 스스로를 臣平秀吉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국왕 宣祖(r. 1567~1608)도 이 표문을 보고 일본에서 작성한 문법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할 정도였다.²³⁾

한편 히데요시 본인과 유키나가 계열 장수들을 제외하고, 『宣祖實錄』에서 가장 많은 등장 빈도를 보이는 인물은 역시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다. 키요마사는 히데요시의 코가이[子飼い] 출신 인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으나, 토요토미 성을 받았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⁴⁾ 키요마사가 속한 시즈카타케노 시치본야리[賤ヶ岳の七本槍] 중에서

20) 『宣祖實錄』卷88, 30年(1597) 5月 11日, “行長與沈冊使書: (...) 且豊臣正成與平調信之回信(...)”

21) 시게노부의 경우는 종군승려 텐케이[天荊, ?~?]가 쓴 『西征日記』에 인용문으로, 5월 임진강 대치 중에 보낸 편지에 스스로를 타이라노 시게노부[平調信]라 하는 부분이 있다(天荊, 『西征日記』. 天正 20年(1592) 5月 15日).

22) 1592년 4월 13일부터 전쟁이 종료되는 1598년 11월까지 나타나는 『宣祖實錄』의 사례 중 토요토미라는 표기가 나온 기사들을 분석한 것이다. 2회 미만으로 언급되는 일본군 장수는 생략하였으며, 조선 및 명측 인물이 발언한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23) 『宣祖實錄』卷48, 27年(1594) 2月 11日.

24) 김시덕에 의하면, 『키요마사 고려진 비망록』에서 키요마사는 스스로를 ‘토요토미 키요마사’로 참칭하였다는 이유로 참소를 받았다고 한다(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pp.153~154). 그런데 같은 대목을 두고 기타지마 만지는 키요마사가 자신을 토요토미 조신(豊臣朝臣)이라 칭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다고 기술하였다(北島万次, 『加藤清正: 朝鮮侵略の真像』, 吉川弘文館, 2009, p.133). 실제로 실려있는 참언의 내용은 ‘자신을 사양없이 토요토미의 조신 등으로 하여 베이징의 대왕에게 그 척답을 하고(我身ハ御免なきに豊臣の朝臣など、北京の大王へ之勅答を仕)’인 것으로 보아(『清正高麗陣覺書』, 「石田治部少加主計を讒奏仕候ニ付、太閤御腹立被成、加藤主計頭に切腹可被仰附と

도 우두머리 격인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1561~1624]만이 토요토미 성씨를 받았는데, 그조차도 히데요시 사후인 1602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키요마사는 자신을 소개할 때 토요토미 성씨를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결국 키요마사는 토요토미를 붙인 유키나가나 요시토시와는 달리, 자신을 일본국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 카토 카즈에노카미 타이라(노) 키요마사[日本國豊臣秀吉臣加藤主計頭平清正]라 하였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점은 키요마사가 자신을 일본국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라고 강조한다는 점, 그 히데요시의 성씨는 어디까지나 토요토미라는 것이다.²⁵⁾ 다른 표현으로 그가 내세운 명칭은 대일본국 카토 카즈에노카미 타이라노 키요마사[大日本國加藤主計頭平清正]였다.²⁶⁾ 앞서 유키나가 스스로를 칭할 때 관위와 영지 및 묘지와 성씨를 모두 표기했던 것과는 달리, 키요마사는 대일본국 히데요시의 신하이면서 관위를 가진 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平氏를 붙였던 키요마사조차도, 히데요시에게는 豊臣姓氏를 붙여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서 미루어 보면, 일본의 다이묘들은 외교 문서상에서 타이라라는 성씨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묘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드물었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인물들은 대다수가 음차한 이름으로 불렸다. 실제로 묘지에 가까운 형태로 기록된 이름들은 외교무대에서 비공식적으로 와전된 인물들인 경우가 많다. 일례로 코니시 히다노카미 쇼안[小西飛彈守如安]은 묘지를 활용하였으나, 이 인물의 경우는 묘지가 코니시(혹은 나이트[内藤])임에도 사료에는 주로 小西飛로 등장하였다. 심지어 『宣祖實錄』에 실려 있는 기사들 중에서 유키나가 보냈다고 기술되어 있는 사료에서도, 코니시 히다노카미 쇼안은 小(少)西飛로 언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인물은 코니시[小西]라는 묘지를 활용하는 인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이나 명에 성씨가 아닌 묘지로만 알려져 있는 인물로는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를 들 수 있다. 조선 측 사료에 의하면 이 인물은 심안돈오(沈安頓吾) 혹은 심안돈(沈安頓)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²⁷⁾ 명측 사료에 따르면 石曼子(石曼子)라고 알려져 있다.²⁸⁾ 문제는 시마즈씨는 조선이나 명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직접 서한을 보낸 적이 없는 인물이다. 요시히로 역시 히데요시로부터 토요토미 성을 받았음에도, 서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묘지로 명칭이 알려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조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石曼子·義弘·沈安道가 세 명의 인물인 줄 알고 있었다. 반면 명은 명칭은 달리할지라도 이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遊擊 茅國器(?~?)는 선조와 만나 그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²⁹⁾ 이 경우는 일본군 포로나 관련

の儀にて、日本へ被召寄候事」), 키요마사가 토요토미 성을 썼다는 해석은 오류인 듯하다. 이 내용 자체가 후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中野等, 「唐入り(文祿の役)における加藤清正の動向」,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53, 2013, pp.101~104), 오히려 『宣祖實錄』뿐만 아니라 카토 가문에도 키요마사가 스스로를 豊臣秀吉(朝)臣으로 지칭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도 있다.

25) 『宣祖實錄』卷84, 30年(1597) 1月 21日.

26) 『宣祖實錄』卷106, 31年(1598) 11月 28日. 키요마사는 유키나가나 요시토시와는 달리 자신의 영지 대신 日本國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카토[加藤]라는 묘지, 카즈에노카미[主計頭]라는 官位와 타이라[平]라는 姓氏만을 활용하였다.

27) 심안돈오(沈安頓吾)로 기록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宣祖實錄』卷65, 28年(1595) 7月 8日; 『宣祖實錄』卷87, 30年(1597) 4月 25日; 『宣祖實錄』卷100, 31年(1598) 5月 5日. 심안돈(沈安頓)으로 기록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宣祖實錄』卷104, 31年(1598) 9月 15日.

28) 『明史』27冊 卷320 列傳208 外國1 朝鮮傳, 萬曆 24年(1591) 5月條; 萬曆 26年(1593) 正月條.

29) 『宣祖實錄』卷108, 32年(1599) 1月 20日.

서한의 유출을 통해 얻은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높는데, 히데요시의 朱印狀이나 다이묘 간의 편지에서는 묘지·관명·이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써서 서로를 불렀기 때문이다.³⁰⁾

이를 통해 보면, 조선과 명에 서한을 보내던 일본군 장수들 대다수는 자국에서 활용하던 토요토미라는 성씨의 용례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즉 토요토미라는 새로운 성씨는 일본의 새로운 실세이며, 일본의 다이묘들은 이를 곧바로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본 내부의 질서가 변화하였음을 조선과 명에 전파하였다.

2) 명군의 豊臣姓氏 활용

또한, 적어도 평화협상의 대상이었던 명에는 이러한 의도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조선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처럼 보였던 듯하다. 『明實錄』이나 『明史』 등의 중국 관찬 사료에는 豊臣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오히려 『宣祖實錄』을 비롯한 조선 측 기록에서 명측 관계자들이 히데요시 및 일본군 장수들을 토요토미 성씨를 활용한 예를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전쟁 당시 명은 조선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琉球 및 강남의 정보망을 활용하는 대국이었으므로,³¹⁾ 조선보다 정보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었다.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려는 내용은 조선에서 파악한 명의 정보 활용이므로, 그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명과 일본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 명은 히데요시를 책봉하여 양국간의 봉공관계를 맺고자 하였는데, 이때 책봉사로 일본에 다녀온 楊方亨(?~?)이 히데요시를 토요토미 히데요시라 불러 보고한 것이다. 아래 사료는 그가 보고한 글의 일부다.

冊封日本正使 等 官五軍營等 衙門署都督僉使 楊 등이 東封을 完報하는 일입니다. 본직이 본년 6월 15일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것은 이미 本題에 갖추어 알렸습니다. 길이 험난하고 풍파가 매우 거세었지만 皇上의 威靈에 힘입어 다행히 목숨을 보전하여 8월 4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즈미노쿠니[和泉州]에 도착하니 곧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미리 준비한 사신 접대소인데, 이곳에서 일본국의 新都와의 거리는 1백 30여 리나 되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여러 차례 왜장(마시타) 나가모리[長盛]와 (이시다) 미츠나리[三成] 등을 파견하여 글을 보내어 영접하고 위로했는데, 자못 성심을 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³²⁾

楊方亨은 본래 책봉일본부사였으나, 정사인 李宗城(?~?)이 조선에서 도주하면서 공석이 되자 그 자리를 이어받고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러므로 일본 책봉 문제와 관해서는 萬曆帝(r. 1572~1620)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록 일본과의 협상과 책봉은 결렬되었으나, 히데요시도 사은표문을 통해 책봉사에 답하는 뜻을 보였다. 이 기록도 『宣祖實錄』에 같은 날 실려 있는데, 이때 히데요시는 스스로를 일본국왕 신 토요토미 히데요시[日本國王臣

30) 시마즈 가와 같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사례는, 초소카베[長宗我部]를 鳥乘監으로 음차하는 등 일본군 장수들의 현지 정보를 보고하는 이순신의 장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李忠武公全書』卷3 狀啓2, 「登聞擒倭所告倭情狀」).

31) 이와 관한 내용은 米谷均, 『全浙兵制考』 「近報倭警」에서 본 日本情報, 『韓日關係史研究』20, 2004; 車惠媛, 「明朝와 琉球간 冊封朝貢외교의 실체: 萬曆年間(1573~1620), 명조의 琉球정책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54, 2008; _____, 「중국 북견지역의 임진전쟁(1592~1598) 대응」, 『東方學志』174, 2016 등을 참조.

32) 『宣祖實錄』卷83, 29年(1596) 12月 7日, “冊封日本正使等官五軍營等揭衙門署都督僉事楊等, 爲完報東封事, 職於本年六月十五日, 自釜山登舟渡海, 已經具本題知訖. 一路險阻, 風波艱危異常, 仰仗皇上威靈, 幸得保全軀命, 至八月初四日, 始抵和泉州, 乃豊臣秀吉預備接待使臣之所, 距日本國新都一百三十餘里. 秀吉屢差倭將長盛、三成等, 持書迎慰, 頗知竭誠.”

豊臣秀吉]라 하였다.³³⁾ 1596년경에 접어들었을 때 명과 일본 사이에서는 일본의 토요토미 성씨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명은 이미 통사를 통해 토요토미라는 성씨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보고받은 바 있다. 接伴使 李時發(1569~1626)이 일본에 다녀온 浙江省 출신 홍 통사라는 인물과 문답한 내용이 『宣祖實錄』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홍 통사는 일본에는 豊臣·朝臣 등의 職號가 있다고 하였다. 풍신, 즉 토요토미는 일본 덴노[天皇]에게 품의하거나 보고하는 일을 직접 할 수 있으나, 조신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직책이라고 파악하였다.³⁴⁾ 이러한 통사의 해석은 일본 고대 카바네[姓]에 대한 이해와 일치한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유키나가가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유키나가가 토요토미 성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겨냥한 표현인 듯하다. 즉, 적어도 이 보고서가 나온 1595년 시점에 명은 일본의 내부 권력구조 변화와 토요토미 성씨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정유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명도 전쟁 준비를 비교적 철저히 하고 조선에 장수들을 조기 파견하였다. 이때 들어온 장수들 중 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 楊鎬(?~1629?)가 유키나가에게 보낸 경고문이 『宣祖實錄』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실록 기록 중에서는 처음으로 명 장수가 유키나가를 토요토미 유키나가[豊臣行長]라 부른 대목이 나와 있다.³⁵⁾ 다만 같은 날 楊鎬는 명 중앙의 자문을 조선에 한 통 더 보여주었는데, 그 자문에는 히데요시를 爾[爾] 平秀吉로 칭하는 모습이 들어있다.³⁶⁾

『明實錄』에 몇 차례 나오지 않는 히데요시는 (平)秀吉로만 등장하며, 단 한 번도 豊臣秀吉라는 글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楊鎬는 유키나가에게 토요토미 성씨를 붙여 불러주었고, 양방형은 히데요시에게도 토요토미 성씨를 붙였다. 그 외에 명의 사신 司憲은 코니시 히다노카미의 성씨를 후지와라[藤原]라 칭하였고,³⁷⁾ 經略使兵部左侍郎 宋應昌도 일본군 다이묘와 조선부교들의 성씨를 豊臣로 일관되게 불렀다.³⁸⁾ 심지어 히데요시를 책봉하는 萬曆帝의 칙서에는 공식적으로 히데요시를 豊臣(平)秀吉로 칭하였다.³⁹⁾ 이로 미루어 보면 비록 명 중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조선에서 보기에 명측 인물들은 토요토미 성씨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혼용하여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조선의 豊臣姓氏 배제와 平氏 활용

지금까지 살펴본 기록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조선 측 기록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일본군이 보낸 자문들 중 명에 뽐낼 것을 가려낸 곳도 조정이었고, 각종 보고서가 당도한 곳도 조선 조정이었으며, 이러한 표현을 접한 인물들도 조정의 관원들이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는 스스로를 타이라라 칭하기도 하는 시게노부를 제외하면, 일본

33) 『宣祖實錄』卷83, 29年(1596) 12月 7日, “日本國王臣豊臣秀吉, 誠惶誠恐, 稽首稽首.” 그 외에 히데요시가 명에 사은표문을 보내려 한다는 사실은 이 해 11월부터 『宣祖實錄』에 몇 차례 실려 있다.

34) 『宣祖實錄』卷60, 28年(1595) 2月 10日.

35) 『宣祖實錄』卷88, 30年(1597) 5月 25日.

36) 『宣祖實錄』卷88, 30年(1597) 5月 25日.

37) 鄭琢, 『壬辰記錄』上, 「司天使題本 正月二十二日」.

38) 鄭琢, 『壬辰記錄』上, 「宋應昌議貢題本 正月二十四日」.

39) 만력제 책봉 칙서 오사가 소장본에는 히데요시를 지칭할 때 “咨爾豊臣平秀吉”라 하였는데(『明皇帝贈豊臣秀吉冊封誥勅』), 같은 내용이 『瑣尾錄』에는 平자가 빠진 채 豊臣秀吉로만 기록되어 있다(吳希文, 『瑣尾錄』卷4, 「封日本國王平秀吉誥」).

과 명의 정보망을 통해, 조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 역시 ‘天將’들이 토요토미 성씨를 사용하여 히데요시 휘하 세력권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토요토미 성씨를 활용하여 히데요시나 휘하 다이묘들을 부르려 하지 않았다.

倭寇가 침범해 왔다. 이보다 먼저 일본 賊酋 平秀吉이 関白가 되어 (중략) 여러 나라를 병탄하고 잔포가 날로 심했다. 그는 항상 중국이 조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일찍이 중 겐소[玄蘇] 등을 파견하여 遼東을 침범하려 하니 길을 빌려 달라고 청했다. 우리나라에서 대의로 매우 준엄하게 거절하자 적은 드디어 온 나라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겐소·타이라노 유키나가[平行長]·타이라노 키요마사[平清正]·타이라노 요시토시[平義智] 등을 장수로 삼아 대대적으로 침입해왔다.⁴⁰⁾

위 기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宣祖實錄』의 기사다. 히데요시가 칸파쿠[関白]라는 정보는 받아들였지만, 그가 이 즈음부터 토요토미 성씨를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선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히데요시 휘하의 다이묘들인 유키나가, 키요마사, 요시토시 등을 부를 때도 모두 平氏로 불렀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도 선조를 비롯한 조선 측 대소신료는 토요토미 성씨를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앞서 흥 통사의 문답을 보고한 접반사 이시발조차도, 같은 글 안에서 인용문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서는 平氏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의 묘지에 해당하는 코니시[小西], 카토[加藤], 하시바[羽柴], 소[宗] 등도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는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히데요시가 스스로를 平氏로 칭하여 조선에 공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므로,⁴¹⁾ 이는 조선이 만들어낸 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조선이 平氏를 활용한 이유

조선 중앙으로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명에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실제로 조선에도 현장 정보를 통해 적군의 최신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정보인지 파악할 역량은 부족하였다.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宋 經略의 揭帖 안에 甘朴宮을 平秀吉이라고 했다 하니, 이 말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비변사는 아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가? 물어서 아뢰라.” (...) 비변사가 아뢰기를, “平秀吉을 甘朴宮이라고 한다는 것은 李鎰이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해 온 사람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정확한 보고는 아닐지라도 들은 바가 이와 같기 때문에 稟帖 속에 언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聖教를 받들건대 매우 允當하시니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보통 일이 아닌 듯하니 巨僉의 의미로 말을 만들라.”⁴²⁾

40) 『宣祖實錄』卷26, 25年(1592) 4月 13日.

41) 조선에 보내는 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히데요시는 스스로를 日本国関白秀吉라 칭하였다(『江雲隨筆』 天正 18年(1590) 11月). 같은 해 류큐에도 히데요시는 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日本国関白秀吉라 칭하였다(『統善隣国宝記』, 天正 18年(1590) 2月 28日).

42) 『宣祖實錄』卷40, 26年(1593) 7月 29日. “上教于政院曰, 宋經略揭帖中, 以甘朴宮爲平秀吉云. 此言出於何處? 備邊司知乎? 何所據而不小之事, 如是言之? 問啓. (...) 備邊司啓曰, 以平秀吉爲甘朴宮者, 李鎰得聞於被擄逃還之人云. 故雖非의 報, 所聞如此, 欲入於稟帖之中, 而今承聖教, 果爲允當. 勿爲無妨. 答曰, 知道. 勿爲如是. 似爲非常, 巨僉之意, 措辭爲之.”

이 사료는 히데요시가 甘朴宮이라 불리는 사례를 經略 宋應昌(1536~1606)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선조가 묻는 내용이다. 문제는 甘朴宮이라는 말은 뜻은 일본에 조금이라도 능통한 자가 있었다면 쉽사리 얻어낼 수 있는 정보였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캄파쿠(関白, Kampaku)을 조선어 발음으로 단순 음차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쉽사리 활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조와 비변사는 이 이상 적정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平秀吉이나 関白라는 호칭이 지닌 의미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조선과 별개의 경로로 협상을 시도했던 키요마사도, 히데요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키요마사는 자신을 豊臣秀吉臣이라 표현하였고, 타이코덴카[太閤殿下]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히데요시의 존재를 어필하였다. 이 두 표현은 모두 히데요시가 일본 내에서 지닌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히데요시가 일본 내에서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인지를 살펴보지 않았다. 이는 명이 토요토미 성씨를 활용하여 일본과 협상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조선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일본이 들여온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의 실세인 ‘일본국왕’으로 처음 알려진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光, r.1368~1394]는 明 永樂帝(r. 1402~1424)로부터 日本國王 源道義라는 책봉을 받았고,⁴³⁾ 요시미츠도 스스로를 源氏로 표현하였던 적이 있다.⁴⁴⁾ 당시 일본에서도 타이라 성씨를 쓰는 이들이 일부 있었고, 조선도 줄곧 討馬島主들을 지칭할 때는 平氏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은 카마쿠라·무로마치 바쿠후를 이끌었던 쇼군들의 성씨인 미나모토씨[源氏]와 히데요시의 타이라씨[平氏], 심지어 다른 귀족 성씨인 타치바나씨[橘氏]를 분명히 구별하여 불렀다.⁴⁵⁾ 심지어 조선과 200년 가까이 교류하면서 스스로를 平氏로 칭한 討馬島主에 대해서도, 조선은 平氏 성과 宗 묘지를 섞어서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그럼에도 임진왜란기 『宣祖實錄』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⁴⁷⁾ 더 나아가 전쟁이 끝나고 편찬된 사찬 자료들인 姜沆(1567~1618)의 『看羊錄』, 柳成龍(1542~1607)의 『懲毖錄』, 趙慶男(1570~1641)의 『亂中雜錄』, 후대에 기록을 모아서 엮은 『練藜室記述』 그 어디에도 토요토미라는 성씨는 커녕 다이묘들의 묘지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기록 역시 성씨를 적지 않거나, 平氏를 일관되게 활용할 뿐이었다.⁴⁸⁾ 平秀吉이라는 명칭은 조선이 먼저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

43) 『明太宗實錄』卷24, 永樂 元年(1403) 10月 11日.

44) 단조 히로시 저, 한종수 역, 『영락제: 화이질서의 완성』, 아이필드, 2017, p.222.

45) 임진왜란과 관하여 ‘源氏’와 ‘平氏’가 아닌 사례로는 타치바나 야스히로[橘康広]가 유일하다(『宣祖實錄』卷21, 20年(1587) 12月 22日). 하지만 橘氏が 이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조선이 일본인들을 源氏와 平氏로만 구별하지 않았음은 명확하다.

46) 討馬島主가 이전까지 대대로 宗氏였음을 조선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은 『懲毖錄』에서도 드러난다(柳成龍, 『懲毖錄』卷1, “對馬島太守宗盛長, 世守馬島, 服事我國. 時秀吉, 去宗氏, 使義智代主島務”). 이 내용은 『西厓集』에 실려 있는 1591년(선조 24) 조선 측의 奏文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平秀吉’의 부하 ‘平義智’가 본래 도주였던 ‘宗義調’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조선국왕이 보고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柳成龍, 『西厓集』卷3 奏文, 「陳倭情奏文」).

47) 조선 측 기록에서는 黃愼(1560~1617)의 보고문(『宣祖實錄』卷65, 28年 7月 17日)에서만 테라자와 마사나리를 토요토미로 부른 건이 보인다. 그런데 이는 『象村集』(申欽, 『象村集』卷56,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과 『再造藩邦志』(申晄, 『再造藩邦志』三)에 실려 있는 7월 기록과 일자와 내용이 같고, 이들 기록에서 명백하게 일본의 보고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면, 황신의 보고문 역시 일본이 명에 보낸 서간의 직접 인용일 가능성이 높다.

48) 심지어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인들이 히데요시를 関白이 아닌 大(太)閤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적정

면,⁴⁹⁾ 조선이 平氏를 활용한 점을 정보 부족이나 편익의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일본의 平氏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에 대한 기초 정보로 申叔舟(1417~1475)의 『海東諸國記』를 활용하고 있었다.⁵⁰⁾ 『海東諸國記』는 成宗 2年(1471) 12월 왕명을 받아 신숙주가 편찬한 일본의 정보인데, 여기에서는 幕府 將軍을 日本國王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국왕의 세계는 源氏다. (...) 이때(保元 3年, 1165)에 타이라노 키요모리[平清盛, 1118~1181]가 정권을 잡고 부자 형제들이 요직을 차지해 정치와 정벌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음란 잔학하여 길 가던 사람들도 눈을 흘겼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 1147~1199]가 이토[伊豆]에서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나가니 (...) 안토쿠 텐노[安徳天皇, 1178~1185] 壽永 元年(1182) 드디어 京城에 진입했다. 平氏는 패배하자 안토쿠(텐노)를 끼고서는 서해로 달아났다.⁵¹⁾

고다이코 텐노[後醍醐天皇, 1288~1339] (...) (元徳) 3年(1331) 신미에 연호를 元弘으로 고쳤다. 이 해에 源氏가 平氏를 공격하니 天皇은 비밀히 京城을 탈출하여 피하였다. (...) 이 때에 이르러 미나모토노 진잔[源仁山,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 1305~1358를 지칭]이 또 平氏를 공격하여 몰아내고 드디어 국정을 장악한 것이다.⁵²⁾

두 사료는 모두 일본국왕(쇼군)에 관하여 신숙주가 『해동제국기』에서 언급한 사료다. 위쪽 사료는 겐페이[源平] 대립 당시 平氏인 키요모리의 악행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결국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거병하여 平氏를 진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래쪽 사료는 室町幕府 성립기를 다룬 내용인데, 여기서도 平氏⁵³⁾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독차지한 토벌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일전에 요리토모가 平氏를 진압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카우지 역시 源氏의 자격으로 平氏를 토벌하였다.

이렇듯 조선에 平氏는 국왕의 자리를 찬탈하거나 권력을 독점하는 역적의 가문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 신숙주는 鎌倉와 室町를 동일한 日本國王의 世系로 이해하였고,⁵⁴⁾ 그에 따르면 平氏는 日本國王(將軍)의 世系에 포함되지 않고 축출되어야 하는 반역자 집단이었다. 실제로

에서 파악하였고(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倭奴號秀吉爲大閤, 故云.”; 黃愼, 『日本往還日記』, 萬曆丙申年(1596) 12월 9日, “今則關白平秀吉傳位於其子, 自稱大閤”), 특히 강항은 大閤이라는 표현을 몇 차례 사용함에도, 같은 글에서 다이묘들의 성씨나 묘지 자체를 아예 쓰지 않았다.

49) 鄭潔西, 「明代萬曆時期における豊臣秀吉像」, 『史泉』109, 2009, p.22.

50) 비록 室町幕府 초기까지의 정보를 다룬 글이라 ‘현실 외교’에는 맞지 않지만(김경태, 『허세와 타협: 임진왜란을 둘러싼 삼국의 협상』, 동북아역사재단, 2019, p.155), 실록을 살펴보면 丁應泰가 서명을 『海東紀略』이라고 보고하자 조선 측이 『海東諸國記』를 지칭한다고 추정할 만큼 유명했다고 볼 수 있다(『宣祖實錄』卷105, 31年(1598) 10월 21日).

51) 申叔舟,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國王代序」, “國王姓源氏. (...) 是時, 平清盛秉政, 父子兄弟, 據要路, 政治征伐, 出於其手. 驕奢淫虐, 道路側目. 賴朝自伊豆起兵而西, (...) 安徳天皇壽永元年壬寅, 遂入京城. 平氏兵敗, 挾安徳, 奔于西海.”

52) 申叔舟,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天皇代序」, “後醍醐天皇, (...) 三年辛未, 改元元弘. 是年, 源氏攻平氏, 天皇密出京城避之. (...) 至是, 源仁山, 又攻逐平氏, 遂執國政.”

53) 鎌倉幕府의 실제였던 잇켄호조씨(執權北条氏)를 지칭하는 듯하다. 종가 출신인지 서출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초대 잇켄인 호조 토키마사[北条時政, 1138~1215]는 타이라노 나오키타[平直方]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다(大嶽真康, 「北条時政考: 源賴朝、北条義時・政子との関係を中心に」, 『鎌倉女子大学紀要』25, 2018, p.2).

54) 申叔舟,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國王代序」, “乃立後鳥羽天皇, 仍鎮鎌倉, 世相承襲, 傳十二代, 至仁山, 後醍醐天皇辛未, 又攻平氏, 盡逐其黨, 總攬國政, 自號等持殿.”

『해동제국기』가 기술되던 시대적 배경인 조선 세종~성종 연간에, 조선은 室町源氏와는 명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등한 예인 ‘敵例’를 취하여 ‘敵國’으로 일본을 인식하였다.⁵⁵⁾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敵國’을 토벌시킨 世系인 平氏は 賊黨이었던 것이다.

2) 전쟁 중에 활용된 平氏와 그 인식

이러한 인식은 전쟁 전후 조선에서도 나타났다.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는 통신사 문제와 관하여 平秀吉을 소개하면서, 그가 源氏를 대대적으로 살해하고 源氏의 칸파쿠직을 장악했다는 것이다.⁵⁶⁾ 아울러 1589년(선조 22) 선조는 히데요시가 제 임금을 살해한 역적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통신사를 파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⁵⁷⁾ 이 정보는 엄밀히 따지면 平氏를 칭했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가 源氏의 일파인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善昭, r.1568~1573]을 권좌에서 추방하였던 내용이 히데요시의 업적과 섞여 있다. 따라서 사실 히데요시가 ‘源氏’를 몰아낸 장본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이에 입각하여 平氏를 계속해서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이 들어오는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일례로 당포 전투에서 승리한 李舜臣(1545~1598)은 우후 이몽구로부터 금부채를 노획물로 받았는데, 거기에는 6월 8일 히데요시[六月八日秀吉], 하시바 치쿠젠노카미[羽柴筑前守]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순신은 하시바 치쿠젠노카미가 히데요시 본인임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노획물을 하사한 인물을 두고 굳이 자료에는 없는 ‘平秀吉’이라는 용어를 빌어 표현하였다.⁵⁸⁾ 전쟁 중 司評 金彦勛(1545~1596)도 宋應昌 대신 露布를 지으면서, 源氏 조정을 무너뜨린 역적이 곧 平秀吉인 것처럼 묘사하였다.⁵⁹⁾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히데요시를 平秀吉으로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조선 내부에 팽배해 있었다.

慶尙道御使 徐滄(1558~1631)이 치계하였다. “(...) 그 중에 키요마사가 ‘우리 국왕이 아직 계시는데 인자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했다고 하니, 이는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유정(惟政, 1544~1610)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겐지[源氏]와 通聘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말을 듣고 즉시 가까이 다가앉아 무릎을 맞대고 말하기를 ‘이른바 옛 국왕은 源氏인가? 나는 源氏가 이미 멸망하여 칸파쿠[関白, 히데요시]가 그를 대신하였는데(그러한 사실은 알아도: 발표자), 源氏의 자손이 나라에 있어 신하들이 다 그를 예처럼 높이 받드는 줄은 몰랐다.’고 하고, 이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源氏は 우리와 交好했고 関白은 우리의 원수다. 나는 장군(清正: 발표자)이 関白과 함께 源氏를 멸망시키고 関白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다(고 알고 있었다). 지금 장군의 말을 들으니 우리와 交好한다. (...) 장군이 만약 源氏를 위해 일어난다면 弊國도 마땅히 군대를 일으켜 장군을 따르겠다.’ 이로써 말을 했다면 말을 하는 사이에 충분히 그 참과 거짓을 탐지했을

55)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景仁文化社, 2007, pp.53~102.

56) 『宣祖修正實錄』卷21, 20年(1587) 9月.

57) 『宣祖實錄』卷23, 22年(1589) 8月 1日. 이러한 이유와 함께, 히데요시가 일본국왕이라 불리면서도 源氏를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平秀吉이라 불리는 등, 이전 쇼군들과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는 존재한다(신동규, 『海東諸國記』로 본 中世日本の國王觀과 日本國王使의 성격, 손승철 역음, 『海東諸國記』의 세계, 景仁文化社, 2008, p.183, 각주 31).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조선이 굳이 豐臣姓氏가 아닌 平氏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

58) 『李忠武公全書』卷2 狀啓1, 「唐浦破倭兵狀」, “同日唐浦接戰時, 虞候李夢龜, 於倭將船, 搜得金團扇一柄, 送于臣處. 而扇一面中央書曰, 六月八日秀吉着名, 右邊, 書羽柴筑前守五字. (...) 必是平秀吉之於筑前守處, 以爲符信之物.”

59) 鄭琢, 『壬辰記錄』, 「司評金彦勛所送陣奇」, “窺惟關白平秀吉者, 日本逆倭, 東南巨寇, 倚山海爲富. 挾諸島以稱強, 戕賊國主, 漸移源氏之宸祧.”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합니다.”⁶⁰⁾

이 사료는 유정과 키요마사의 회담을 보고 경상도 여사 서성이 치계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源氏가 정당한 일본의 권력자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사이가 좋았던 세력은 源氏고, ‘平氏’ 関白 秀吉는 그 源氏를 멸문시킨 줄 알았던 원수였다. 그런데 그런 조선에서 보면 ‘정통한’ 源氏가 일본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히데요시의 권위를 뒤흔드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또한 서성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협상의 소재로만 다루려 하였음에도, 키요마사에게 조선은 히데요시를 타파하고 源氏의 재흥을 위해서라면 병력도 지원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키요마사가 언급한 국왕은 아시카가(미나모토) 쇼군이 아닌 텐노[天皇]이므로,⁶¹⁾ 서성의 발언조차도 정확한 정보 위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관은 키요마사의 교활함을 들어 서성의 주장이 성사될 리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럼에도 여타 『懲毖錄』·『寄齋史草』·『練藜室記述』·『瑣尾錄』 등 당대를 다룬 여러 기록에서도, 이러한 인식선상에서 히데요시를 平秀吉로 불렀음을 짐작케 한다.

반대로 전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2~1616]가 국교 재개를 위해 조선에 서계를 보냈을 때, 승문원은 이 서계를 보고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승문원은 그 근거로 이에야스가 미나모토노 이에야스[源家康]라고 스스로를 칭한 점을 들었다.⁶²⁾ 이에야스는 토요토미 성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고, 그의 권위를 몰아내고 다시 바쿠후를 세웠으며 요리토모의 먼 후예를 자처하였다. 따라서 그가 源氏를 표방하고 나서는 것은 특별히 이질적인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와 다르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源氏’라는 성을 히데요시와 다르다는 증거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명과 조선은 일본의 장수들이 스스로의 성씨를 토요토미로 칭하고 있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에 나온 명의 장수들은 이를 받아들여 공문서상에서도 토요토미 성씨를 칭할 때가 있었지만, 조선은 동일한 정보를 취하면서도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은 토요토미라는 ‘신흥 질서’도 미나모토라는 ‘기존 질서’도 아닌 타이라를 사용함으로써, 平氏에 부여되어 있던 ‘역적’의 이미지를 씌워 일본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그를 토멸해야 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결국 일본이 내세운 자국의 질서 변화는, 오히려 조선에게는 ‘敵國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賊國’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60) 『宣祖實錄』卷52, 27年(1594) 6月 19日, “慶尙道御史徐渚馳啓曰, (...) 其中清正曰, 吾國王尙在, 慈仁愛人. (...)云, 此是不可得之機會也. 若使惟政, 知國家古與源氏通聘, 則聞其言, 而卽促席接膝曰, ‘所謂故國王者, 源氏乎? 吾以爲源氏已滅, 關白代之, 不知源氏子孫在國, 故臣皆尊奉之如舊也.’ 因嘆息而言曰, ‘源氏, 吾之交好也, 關白, 吾之仇讐也. 吾以將軍爲同關白而滅源氏, 奉關白之令, 而來寇我邦也. 今者, 聞將軍之言, 是則我之交好也. (...) 將軍若爲源氏之舉, 則弊國亦當以兵從將軍. 以是言之, 則辭氣之間, 足探其眞詐而未及焉, 可惜已矣.”

61) 히데요시 집권 당시는 幕府체제가 아니었으므로 키요마사는 天皇를 지칭하였겠지만, 유정은 당시 키요마사가 말하는 국왕이 源氏의 후예인지 일본 天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惟政, 『松雲大師奮忠紓難錄』, 「別告賊情」).

62) 『宣祖實錄』卷205, 39年(1606) 11月 12日, “承文院啓曰, 今見家康書契, 則稱日本國王源家康, 其意蓋爲追繼源氏之統, 以示盡反秀吉所爲之實狀.(...)”

IV. 맺음말

지금까지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일본의 토요토미 성씨 활용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토요토미 성씨는 일본에서는 텐노가 하사한 귀족의 성씨이자, 히데요시가 관직을 내리면서 활용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토요토미라는 성씨는 히데요시의 권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새로운 질서를 갖추어나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조선을 공략하던 일본의 장수들 역시 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유키나가가는 언제나 자신을 토요토미 유키나가로 소개하였으며, 유키나가 휘하의 장수들도 스스로를 소개할 때는 언제나 토요토미 성을 붙였다. 오직 토요토미 성을 쓸 수 없었던 키요마사만이 헤이시(타이라)를 사용하였고, 그조차도 히데요시에게는 토요토미를 붙여 칭하였다.

이러한 기록에 대해, 당시 명은 토요토미라는 용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豊臣의 의미에 대해 분석한 명의 통사, 직접적으로 토요토미를 거론하며 내려온 칙서 등이 그러한 예시이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용례를 보면서도, 명과는 달리 토요토미 성씨를 가급적 활용하려 하지 않았다. 조선 측 기록에도 일본에서 보내온 문서에 실려 있는 토요토미 성씨는 그대로 남겨두었고, 심지어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명의 관원들이 적은 토요토미라는 성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조와 대소신료는 일본인들을 부를 때 토요토미라는 성씨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이렇듯 조선은 豊臣秀吉가 이끄는 일본을 ‘敵國’, 즉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여기지 않았고, 대등한 상대여섯도 안 되었고 여겼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히데요시나 유키나가 및 키요마사를 倭酋, 行酋, 淸賊 등으로 부르며 멸시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단순히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조선은 끝까지 일본이 추구한 질서 변화를 보면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상국인 명조차도 토요토미 성씨를 활용하며 그들의 변용을 일부나마 받아들였고, 일본의 질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을 조선은 보았다. 그럼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일본군은 역적이 이끄는 도적에 지나지 않아야 했으므로, 이 ‘전쟁’은 어디까지나 ‘倭亂’이어야만 했다. 이는 조선에 ‘壬辰倭亂’이라는 명칭이 빠르게 정착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에 일본이 독자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그에 균열을 일으킨 국제전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에게 일본군의 공격은 큰 위협이었지만, ‘명 중심의 봉공질서에 도전하는 일본의 신 질서’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 전쟁은 어디까지나 국지전이자 왜인들이 일으킨 소동이었지, ‘주권국 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벌인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조선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요동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서 자신의 주장과 입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차 사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明實錄』 『明史』
『松雲大師奮忠紓難錄』 『李忠武公全書』
姜沆, 『看羊錄』.
柳成龍, 『西厓集』.
_____, 『懲毖錄』.
申叔舟, 『海東諸國記』.
申晷, 『再造藩邦志』.
申欽, 『象村集』.
吳希文, 『瑣尾錄』.
鄭琢, 『壬辰記錄』.
黃慎, 『日本往還日記』.

北島万次 編, 『豊臣秀吉朝鮮侵略関係史料集成』 1~3, 平凡社, 2017.
天荊 著, 김시덕 역주, 『西征日記』 上·下, 『문헌과 해석』 58·59, 2012.

저서 및 논문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허세와 타협: 임진왜란을 둘러싼 삼국의 협상』, 동북아역사재단, 2019.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단조 히로시 著, 한종수 역, 『영락제: 화이질서의 완성』, 아이필드, 2017.
민덕기,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 관계』, 景仁文化社, 2007.
박수철,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손승철 역음, 『『海東諸國記』의 세계』, 景仁文化社, 2008.
米谷均, 『『全浙兵制考』 「近報倭警」에서 본 日本情報』, 『韓日關係史研究』 20, 2004.
유성룡 著, 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징비록: 한국의 고전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으로』, 아카넷, 2013.
李基東, 「新羅의 骨品制度和 日本의 氏姓制度」, 『역사학보』 94·95, 1982.
이근우, 「고대 일본의 씨성 개념과 『신찬성씨록』의 개성」, 『韓日關係史研究』 64, 2019.
정두희·이경순 역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鄭琢 著, 이민숙·이주해 역, 김경록 해제, 『壬辰記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존 W. 홀 著, 박영재 역, 『일본사』, 역민사, 1986.
車惠媛, 「明朝와 琉球간 冊封朝貢외교의 실체: 萬曆年間(1573-1620), 명조의 琉球정책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54, 2008.
_____, 「중국 복건지역의 임진전쟁(1592~1598) 대응」, 『東方學志』 174, 2016.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Kenneth M. Swope,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9.

阿部武彦,『氏姓』,至文堂,1976.

池享,『戦国・織豊期の武家と天皇』,校倉書房、2003.

大嶽真康,「北条時政考: 源頼朝、北条義時・政子との関係を中心に」,『鎌倉女子大学紀要』25, 2018.

北島万次,『加藤清正: 朝鮮侵略の真像』,吉川弘文館,2009.

黒田基樹,「慶長期大名の氏姓と官位」,『日本史研究』414, 1996.

下村効,「豊臣氏官位制度の成立と発展--公家成・諸大夫成・豊臣授姓」,『日本史研究会』377, 1994.

鄭潔西,「明代万暦時期における豊臣秀吉像」,『史泉』109, 2009.

中野等,「唐入り(文祿の役)における加藤清正の動向」,『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53, 2013.

二木謙一,『武家儀礼格式の研究』,広川弘文館,2003.

堀越祐一,「豊臣期における武家官位制と氏姓授与」,『歴史評論』640, 2003.

村川浩平,「羽柴氏下賜と豊臣姓下賜(研究ノート)」,『駒沢史学』49, 1996.

_____,「天正・文祿・警長期、武家叙任と豊臣姓下賜の事例」,『駒沢史学』80, 2013.